2015 WATER KOREA

우리 물기업, 세계 무대를 향한 날개 달다!

WATER KOREA

대한민국 대표 국제 물산업 박람회인 2015 WATER KOREA가 지난 8월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02년 시작해 14회째를 맞이한 올해 WATER KOREA는 여느 때보다 더욱 활기차고 밀도 높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련 종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원 선정 최고 제품상'을 신설하고 전시장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꾀했다. 또한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해 온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을 우리 협회와 K-water의 공동 주최로 동시 개최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열었던 수출상담회는 올해에도 이어져 우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도왔다.

이밖에도 많은 부대행사를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국도시물협회, 일본하수도협회, 경기도, 한국철강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등 유관 기관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각종 연계행사를 동시에 개최해 전시회 참가 기업은 물론 관련 업계 종사자, 공무원 등 모두에게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했다.

20개국에서 찾아온 2만 명의 사람들

상하수도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이자 국제적 물산업 축제의 장인 '2015 WATER KOREA(국제물산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고양시 KINTEX(킨텍스)에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치른 올해 행사는 수출상담회, 학술발표회, 토론회 등 30건 이상의 연계행사를 함께 열어 '역대 최다 단위행사 개최'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행사장에는 총 20,725명의 참관객이 방문해 쉴 틈 없이 활기를 불어넣었다.

8월의 태양보다 뜨거운 열기, 전시회

WATER KOREA의 메인 행사인 전시회에는 190개 기업·기관이 6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물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소개됐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국내·외 바이어들, 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방문해 뜨거운 열기로 가득 메웠다. 참관객 분석 결과 관련 기업 종사자 등 일반 참관객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사업자·공공기관 관계자가 38.9%로 그 뒤를 이어 수요자 방문 비율이 높은 실효성 있는 전시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의 관람 목적은 정보 수집, 시장 조사, 제품 구매, 교류 증진 등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전년보다 방문 동기가 구체적이고 다양해졌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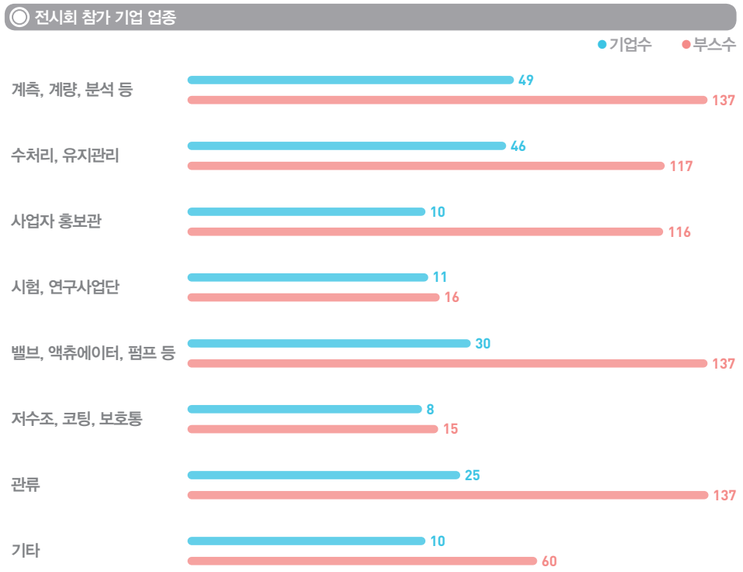
전시회 규모

참관객

전시장에서는 전시회 참가 기업과 구매자 간의 열띤 상담이 매순간 이어졌고, 수출상담회를 찾아온 해외 바이어 등 국외 초청 인사들의 참관과 상담이 곳곳에서 진행됐다. 즉각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전시장 내 카페에서는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과 상담,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회원 선정 우수 제품상'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해 전시 기간 내내 기업들의 부스를 직접 방문하고 제품을 평가해 4개 업체의 제품을 선정했으며, '회원 선정 인기 부스'와 '참관객 최다 방문 부스' 각 1개 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이들 6개 기업은 오는 3월 부산 BEXCO(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16 WATER KOREA'의 1개 부스를 부상으로 받았다.

전시회 참가 기업 업종



비즈니스를 원한다면 WATER KOREA로 오라

2015 WATER KOREA는 국내 물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 박람회답게 기업의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수출상담회, 전시 참가기업 제품 및 기술 설명회, 회원 선정 우수 제품상 시상,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 등 다채로운 참여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고객과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별도의 홍보 기회를 제공해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출상담회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행사이다. 올해 수출상담회에는 베트남 5개사, 말레이시아 3개사, 중국 4개사, 오스트레일리아 1개사, 홍콩 1개사, 코스타리카 1개사 등 6개국 15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기업 37개사와 집중형 상담을 진행했다.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195건 3,69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323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는 행사 이후에도 계속됐다. 해외 바이어들은 관심 있는 기업의 공장을 추가로 방문하거나 추가 정보를 위한 교류를 요청하는 등, 우수한 우리 제품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또 전체 바이어 중 절반 가량인 8개사는 국내 기업을 자국에 초청하거나 추후 한국을 다시 방문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해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상담회 규모

참가 기업 37개사

해외 바이어 6개국 15개사

수출상담회 상담 실적

현장상담 : 95건 3,690만 달러(약 358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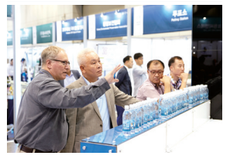
계약예정 : 23건 323만 달러(약 38억 원)

회원 선정 우수 제품상

올해 신설된 회원 선정 우수 제품상은 전시회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출품 제품을 공모한 후, 전시장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 · 시상하는 비즈니스 촉진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우수 제품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올해 공모에는 상하수도 분야 전반에 걸쳐 총 35개 제품이 접수됐다. 평가는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졌다. 전시회 동안 수도사업자를 포함한 상하수도 전문가 90여 명이 접수된 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해 제품을 눈으로 살피고 평정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상수도 부문에서는 ㈜PPI평화 · 티오켐㈜, 하수도 부문에서는 ㈜가우스 · ㈜일성의 제품이 각각 회원 선정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이들 4개사는 추후 협회가 개최하는 상하수도 공무원 업무 워크숍에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얻었다.

전시 기업 제품 및 기술 설명회

기업이 직접 고객들을 초청해 자율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바이어와 직접 교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참여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사 중 하나가 됐다. 2015 WATER KOREA에서는 총 7개사가 참여해 매시간 자사의 제품과 기술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2015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은 우수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K-water가 주최하기 시작한 기술경진대회이다. 올해에는 우리 협회와 K-water가 2015 WATER KOREA 기간 중 수도기술대전을 공동으로 주최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었다.

2015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에서는 ㈜바램, 신진정공㈜, 한국에어로㈜, ㈜썬텍엔지니어링, ㈜삼진정밀 등 다섯 개 기업의 기술이 우수 기술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 K-water 사장상, 한국상하수도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들 5개사는 전시장 내에 마련된 특별 홍보관을 통해 참관객들에게 자사의 우수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사람, 기술, 그리고 산업이 교류하는 곳

'사람, 기술, 산업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WATER KOREA의 개최 취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2015 WATER KOREA는 정부 및 지자체, 기업, 학술 단체, 연구소, 유관기관 및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30건 이상의 연계행사로 채워졌다.

기업참가 행사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 전시 기업 제품 및 기술설명회, 수출상담회 등 5건
국제교류 행사	국제 물협력 회의, 한·일 수도 포럼, 한·일 하수도 교류회, 제4차 한·중 물포럼, 물 재이용 국제 워크숍 등 6건
세미나	「상수도 시설기준」 개정 공청회, 미국 주요 인증제도(NSF, UL) 설명회, 상하수도 업무개선사례 발표회, 공동 학술 발표회, 제2회 수돗물 시민 토론회 등 12건
회원기관 정례회의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 상하수도 관리자 회의, 특·광역시 기술(급수)부장 회의, 하수관로 유지관리협의회 정기 회의 등 10건
기타 연계행사	광복 70주년 기념 물 사진전,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STS) 세미나 등

특히 올해에는 미국 주요 인증제도(NSF, UL)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이 설명회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인증제도들의 개요와 취득 방법, 인증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5 WATER KOREA 행사장을 찾은 NSF의 클립튼 맥렐란(Clifton McLellan) 부회장은 설명회에 앞서 우리 협회와 NSF 간의 MOU 체결식을 가지기도 했다. WATER KOREA의 특징 중 하나인 회원기관 정례회의도 활발했다.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 상하수도 관리자 회의, 특·광역시 기술(급수)부장 회의 및 하수도 부서장 회의, 하수관로 유지관리협의회 정기 회의 등이 열려 우리나라 물산업의 주요 수요처인 수도사업자들에게 인적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

한편 올해 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세미나 및 회의 참석 시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발급해 상시 학습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여행 상품권 추첨 등 푸짐한 현장 이벤트를 열었으며 커피, 맥주 등 무더위를 날려 줄 시원한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8월 개최, 아쉬움이 남지만 알찬 행사로 성공적 마무리

2015 WATER KOREA는 지난 4월 개최된 범국가적 행사 '제7차 세계 물 포럼'에 동참하고자 개최 시기를 8월로 옮겼다. 무더위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시회 규모와 참관객 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역대 최다 연계행사를 개최해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로웠다고 평가된다.

WATER KOREA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물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성장했다.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품을 소개할 기회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 국내 · 외 바이어, 일반 관람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찾는 물산업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전보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적절한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2015 WATER KOREA. 그 생기 가득한 현장에서 내년 3월에 부산광역시와 공동 주최로 찾아올 2016 WATER KOREA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볼 수 있었다.

2015 WATER KOREA의 커튼콜을 장식한 기업들

우리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더욱 빛났던 2015 WATER KOREA!
폐막식과 함께 진행된 참가 기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올해의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회원선정 우수제품상 수상기업

회원선정 우수제품상 수상 기업에는 2016 WATER KOREA의 1개 부스가 수여됐으며,
향후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업무워크숍에서 자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함께 주어진다.

PPI PIPE SYSTEM

상수도 우수 제품

㈜PPI평화, 「iPVC 수도관」

'한번 시공, 백년 사용'을 목표로 개발된 iPVC 수도관은 녹과 부식을 방지하는 동시에 인장강도와 충격강도를 모두 향상해 제품 수명이 무려 백 년에 달한다. KS 표준 대비 인장강도는 23%, 내충격강도는 200%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성능은 ISO 1167-1 장기내구성 평가를 통해 검증됐다. 또 수도관 내진 평가 결과 진도 7의 지진에도 안전함이 입증됐다. 국내 신기술인증(NEP)과 녹색기술제품 인증, 우수제품인증을 획득했으며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미국국립위생규격(NSF), 미국재료협회(ASTM), 미국수도협회(AWWA) 인증과 미국방부(FED) 승인을 받았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채택되어 평택시 현장 1,465만㎡에 메인 송수라인으로 시공해 현장 검증도 마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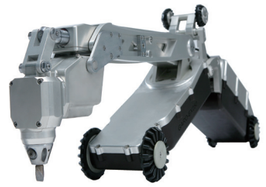
TIOCHEM

티오켐㈜, 「나노 세라믹 수지도료」

티오켐㈜이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나노 세라믹 수지도료(세라수)는 국내 최초로 나노 기술을 응용해 완성한 코팅제이다. 세라수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티오켐㈜의 제품은 나노 단위 크기의 무기 소재로 되어 있어 침투력이 탁월하고 부착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강점이 있다. 금속 산화물이 미세한 공극에까지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 타일, 아연도금 등 다양한 금속재와도 호환되어 범용으로 쓰일 수 있다.

한편 다양한 반응기를 가진 복합실란 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어 기존 구도막과 일체화가 가능해 보수 도장 공사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석유 수지 도료와 달리 세라믹 수지를 사용해 내약품성과 불연성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GAJUS



하수도 우수 제품

㈜가우스, 「관로준설로봇 GARO-EX300」

GARO-EX300은 용도에 따라 '이물질 제거 툴', '체인 브러시 툴', '나뭇가지 제거 툴', '관로 보수 툴', '그라인딩 툴' 등 다양한 툴을 교체 부착할 수 있어 로봇 한 대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로 준설 로봇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허리를 접는 폴딩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로봇 몸체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관절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에 유럽산 제품들보다 자유로운 구동력과 장애물 주파 능력을 자랑한다. 또 관로 천장에 전복 방지용 바퀴를 밀착하기 때문에 로봇의 하중을 해머 툴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어 작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작업 시간도 이전 로봇들보다 현저하게 단축하고 있다.

ILSUNG 주식회사 일성

㈜일성, 「진공 강자 흡식 펌프」

탱크 안에 담긴 액체를 펌프로 빨아들이다 보면 호스에 공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흡입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닥에 약간의 액체가 남는다.

㈜일성은 이를 해결하고자 세계 최초로 탱크 바닥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액체를 100% 빨아들일 수 있는 진공 강자 흡식 펌프를 개발했다. '만능 펌프'라 불리는 이 제품은 독자적인 진공 설계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가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으며, 부유물을 회수하는 설비까지 함께 갖추어 기능성을 더했다. 호수나 폐수처리장 수면의 부유물, 해수면에 유출된 기름 등을 제거하는 작업까지도 가능해 앞으로 더욱 폭넓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의 전시 부스상 수상기업

㈜삼진정밀, ㈜고비

2015 WATER KOREA 행사 동안 참가기업 부스에 고객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참관객들의 부스 방문 데이터를 집계했다. 또 한쪽에서는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인기 부스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결과 '회원 선정 인기 부스'에는 ㈜삼진정밀이, '참관객 최다 방문 부스'에는 ㈜고비가 선정됐다. 두 기업에게 2016 WATER KOREA의 1개 부스가 부상으로 주어졌다.